

월/요/광/장

고영을



최근 한국갤럽은 '한국인의 철학'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했다. 한국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내용은 '인간은 악하기보다는 선하다' '나쁜 일을 하면 대가를 치른다' '운명은 타고나기보다는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만들어진다' '같은 직무라도 능력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월급을 받는 것이 공평하다' 등이다.

말하는 이들이 많다. 러시아나 심지어는 미국 대학생 절반 가량이 현대나 삼성을 일본제품으로 알고 있었다니 실감이 난다. 5년 전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에 갔을 때는 한국대사관도 없었다. 그런데 호텔이나 큰 식당에는 LG, 삼성 등의 TV 등이

인생은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노력이 가슴의 뭉클함으로 도달했다. 이번 한국갤럽의 결과에 인생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란 한국인들의 근성과, 긍정적인 인생관이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의 밑거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한다. 그리고 '한국인임이 자랑스럽습니까?'라는 질문에 85%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쟁이 낄 경우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찬히 봤다는 답도 61%였다. 이는 한국인의 힘과 지력을 볼 수 있는 통계로 우리나라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통계들을 살펴보면 효과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충분히 녹아있다는 생각이다. 효과 좋은 근본은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첫째이다.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 사람 중 아홉 명이나, 세상 구경시켜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들도 다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4월도 거의 지나간다. 이럴 때마다 나이를 생각하고 세월의 무상함에 늙어간다는 생각이 마음이 실란해지기도 한다. 바람

"이제 갓 80살 넘는 것들이 말이야. 자기도 내 나이 곧 될 텐데" 그 할머니는 80대인 할머니들을 새파랗다고 표현한다. 맞는 말이다. 예를 들면 스무 살 되는 대학생이 열 살짜리 초등학생을 상대하 해주겠는가. 80세도 새파란 나이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 꽃이 피지도 않았다. 정말 살맛이 난다. 현재 어떤 나이로 하더라도 꽃다운 나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심각해 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세월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지 않은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한다. 가는 세월에 몸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꽃다운 나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생활해 도 되겠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라는 천상병 시인의 시구처럼 우리는 소풍을 만끽해야 하니 슬퍼할 겨를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라는 유행어가 사사까 생각난다. 정말 그렇다. 우리 모두는 21세기가 우리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를 원하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가자.

<고려대학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칼럼

김승희



판사로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짧다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다. 돌이켜 보면 임관하기 전 내가 알고 있던 판사의 역할은 실무에 쫓겨있던 것 같다. 마치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짐을 나신 여행처럼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시작한 셈이다. 다행히도 일을 하면서 판사의 역할에 대한 내 생각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변한 것 같다. 거대담론의 관점에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판사는 재판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누가 가지게 하는 것이 정인지, 어떤 행동이 우리 사회가 허용할 범위

를 벗어나고 있는지, 허용된 범위를 벗 재판이 벌어질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법정에서 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판사는 그 때 마다 그 주장에 대하여 발언을 막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한 사건의 재판이 길어지면,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주장을 듣는 것보다 기록을 살펴보고 이론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판사가 그의 발언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재판이 화해와 평화의 장이 될 가능성은 사라져버린다.

나는 재판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어떤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은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일을 한다. 판사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면, 사회구성원은 허용되는 행동의 결과로 얻은 대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고, 허용되지 않는 행동의 결과로 얻은 대가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 허용된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다. 판사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복잡다단하게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당연한 위 역할 따지도 제대로 해내는 게 쉽지 않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법이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어떤 것을 정의라고 규정해 놓았는지를 찾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판사들은 다른 이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격무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격무와 스트레스는 재판 과정을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데 어려움을 준다. 재판을 하게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법적 지식보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을 한다.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들 사이에

그러나, 법이 다수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분히 감정적인 주장이 법을 벗어난 윤리의 관점에서는 보다 진리에 가까운 주장일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재판 규범의 외연을 법을 넘어서 윤리의 영역까지 확장해 보면 내가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 또 그 주장의 의미를 되새겨 재판관 관련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모든 이가 납득하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재판이 화해와 평화의 장이 되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당사자의 진심을 다가가려는 판사의 모습은 그래서 아름답다. 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은 수도자와 같은 정진과 인격의 도야를 거쳐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 나는 내게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재판이 화해와 평화의 장이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물론 하지만, 아직도 법정에서 당사자의 서투른 주장을 듣게 되면, 쓸모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감정적 반응이 나타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언제쯤 나는 내가 재판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 숙제는 법복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 머리는 늘 무겁다. <광주고등법원 판사>

기고

이병열



이집트 등 민주화운동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중항쟁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960년 광주4·19혁명,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는 의학 광주, 민주화도시 광주 등 광주 애정의 산실이며 광주의 역사유산이다. 이는 광주 정체성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으로서 세계 어느 도시와도 차별화되는 광주의 자산이다. 때문에 광주 3대 민중항쟁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정신을 바로 세우고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광주의 자산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광주시 청사 1층에 게시된 광주 3대 민중항쟁 역사홍보판과 같이 광주4·19도 학생독립운동,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이 동등하게 관리되기를 바란다. 올 4·19혁명 51주년을 맞아 광주4·19 주역들은 기념식에서 광주4·19 최초 발상지로인 4·19로에 세워진 4·19사적 지기탑 LED조명 제막식을 갖는다. 이는 시민들에게 야간에도 4·19 역사를 알리고, 재인식해 5·18과 더불어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민주화도시 광주 위상을 드높이기 위함이다. 지난 4월7일에는 호남의 4·19혁명 위상정립을 위해 금수장관광호텔에서 호

4·19역사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광주민중항쟁에 비해 4·19혁명의 역사는 소외되어온 게 사실이다. 묻혀있고 소외되면서 상당수의 광주시민들은 광주에 4·19혁명의 역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광주4·19 주역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향의 나이에 불구하고 광주4·19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머니를 털어거머 기금을 모아 광주4·19 역사를 기릴 수 있는 상징물인 광주4·19혁명탑, 광주4·19혁명그늘시내, 광주4·19도로, 4·19사적지기념탑 등을 건립해 송고한 4·19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다. 때문에 관계기관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

남 4·19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호남 4·19혁명 단체총연합회를 탄생시켰다. 호남 4·19혁명 위상정립사업은 4·19 역사가 바로 세우기 사업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호남 4·19혁명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호남4·19혁명의 발상지인 광주4·19혁명의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하며 광주4·19역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중항쟁의 역사와 환경이 바르게 정립·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의 상징이요, 행복한창조도시 광주의 주춧돌이다. 행복한창조도시 광주의 주춧돌은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고려 산고에 산고를 거듭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행복한창조도시 광주를 기대한다. <4·19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나라꽃 무궁화 홍보 관공서부터 앞장 섰으면

4월이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 든다.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3000년 전부터 민족정서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춘은 겨울에도 꽃잎이 잘 견디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표상으로도 사용되는데 근자에 와서 빗맞아 밀려 출대반아 슬프기 그지없다. 시청에 가도 학교에 가도 무궁화 한 그루 발견하기 어렵지만 빗맞은 웬만한 공원과 도로변, 아파트 가로수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무궁화 축제는 들어 보지 못했지만 지자체마다 빗맞춤제는 부지기수다.

최소한 관공서에서는 국민정서 교육상 무궁화를 심어 무궁화가 어떤 꽃인지를 알려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나 각급 학교에는 반드시 무궁화를 의무적으로 심고 꽃말도 붙여 나라꽃임을 인식시키고 무궁화꽃이 활짝 피는 여름철에 축제기간도 가장으면 한다. 물질적인 풍요와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되는 관에 나라꽃까지 무관심하고 애국심마저 사라진다면 국가가 위태로울 때 누가 나서겠는가.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등

시설

복수노조 부작용 최소화 방안 서둘러야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대해 노(勞)·사(使) 모두 반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대한안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사측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완전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노조 간의 세력다툼,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 통일성 훼손 등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의 이종가입 금지 등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노사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복수노조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복수노조 시행 시기에 맞춰 총과업을 선언했고, 기업들은 시기 상조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계는 벌써 복수노

조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급속고속은 올해 초 일부 노조원들이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를 설립해 파업까지 벌였다. 또한 금호타이어와 기자자동차는 제 2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고, 삼성전자와 포스코의 노조 탄생 여부도 관심거리다. 지역 산업계의 노사관계 대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복수노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싸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 가열될 경우 전방적인 노사관계 약화는 물론 생산차질과 생산성 저하 등 많은 후유증을 겪을 우려가 크다. 이런 조짐은 이미 산업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노사도 한번에 모든 것을 일으려려는 자세를 버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복수노조가 될 수 있도록 절제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가벼운 처벌이 '병원 보험 사기극' 키운다

브로커를 통해 환자들을 불법 유치한 뒤 요양급여금을 타내는 '병원 사기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순천과 경기 김포에서 수십억 원대의 보험금과 요양급여금을 편취한 신종 보험사기단 95명이 적발된 데 이어 14일 광주에서도 브로커를 통해 차매환자 정신질환자를 불법 입원시킨 광주 K병원 등 병원장 4명과 브로커 13명 등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병원장들은 환자 1명을 유치할 경우 사제금으로 매월 10만 원씩 건네는 등 브로커들에게 총 3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2년6개월 동안 불법 환자만 150명을 유치했다고 한다. 병원장들은 특히 병원 내에 '사회사업부'라는 환자 유치 전담부서까지 만들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들은 병원 직원으로 고용, 정신질환자들을 유치하는 등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병원장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을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고, 조직적인 수법을 동원해 범법을 저질렀다니 말문이 막힌다. 병원장들은 또 브로커들에게 건넨 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입원 일자를 늘리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성 질환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이들의 '호주머니' 역할을 한 것이다. 요양급여금이란 '홍선 효과'로 인해 사기를 당한 만큼 건강보험이 적자에 허덕이는 요인이 되고, 그 부담을 국민이 체스나 가입자가 진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법기관에선 끊이지 않는 요양급여 사기극이 반드시 척결될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경찰이 이번에 병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한 것은 응당치 못한 처사다. 보험자들을 유치하는 등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병원장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無等鼓

한식과 한복은 한옥과 더불어 우리나라 맛과 멋의 정수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와 풍토, 기후, 발달 한민족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문화적 요소가 모두 그 안에 녹아들어 있다. 그중에서도 한식은 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음식이 많아 깊고 감칠맛 나는 맛을 자랑한다. 전라도 한정식에는 찜을 수록 입맛을 당기는 '계미'가 있다. 한복은 곡선과 여백, 풍성함이 특징이다. 신체를 속박하지 않고 넉넉하게 감싸주는 여유가 있다. 봉황이 날개 짓 하는 듯한 기와지붕과 아담한 주변 산세를 닮은 초가지붕의 몸매는 또 어떤가. 고유의 멋이 담긴 이들 전통의식주문화는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상품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절반인 국내 고급 관광호텔들의 우리 문화 급이가 이때부터에 오르고 있다. 국내 1급 이상 관광호텔 가운데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는 5곳 중 1곳꼴에 그치고 있다. 한정식을 대표음식으로 내세우는 광주지 역은 그나마 나은데도 8곳 중 절반 수준이다. 상당수는 한식당 대신 일식당과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한식 세계화'를 외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식을 즐기고 싶어도 호텔 안에서는 맛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지난주에는 국내 대표 호텔 중 하나인 신라호텔이 한복을 입은 손님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호텔 직원 이 뷔페 레스토랑을 찾은 한복 디자이너에게 '한복은 위험한 옷이다. 부피감이 있어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제지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다체어는 나라 호텔이나"면서 분통을 터뜨렸으며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 관광상품이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절반인 국내 고급 관광호텔들의 우리 문화 급이가 이때부터에 오르고 있다. 국내 1급 이상 관광호텔 가운데 한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는 5곳 중 1곳꼴에 그치고 있다. 한정식을 대표음식으로 내세우는 광주지

전통문화



다. AFP와 각국의 위신은 '해의 토끼'에 자국의 전통을 배척한 이례적 사례로 소개했다. 이번 사건은 역사적이지만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짝' 관심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업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정홍식 정책부장 who@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0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